

수만 개의 지역주민 연합회 단체들이 매년 독립기념일에 화려한 불꽃놀이를 열기도 한다. 이 모든 일들은 기존 공공재 이론에 따르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실제로는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.

이렇게 시장과 경제학 교과서와의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시장에서의 민간 참여자가 충분히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여 무임승차자들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해진 사실에 근거한다.

사유재산 vs. 공공재산

시장의 민간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사유재산에 초대하기 전 관람객들에게 미리 참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불꽃놀이를 주최하는 것이 가능하다. 디즈니 월드 이용객들은 불꽃놀이에 대한 비용을 따로 내지는 않는다. 그 비용은 놀이공원 입장권료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. 지역주민 연합회 또한 비슷하게 운영한다. 주민들에게 매년 청구되는 비용 중 일부가 불꽃놀이에 쓰이는 것이다. 물론 자신이 불꽃놀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불꽃놀이를 제공하지 않고 매년 청구되는 비용이 좀 더 저렴한 지역에 살 자유 또한 존재한다.

이에 빗대어서 다시 방역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다. 코브라 뱀이 길거리에 기어 다닐 때 무임승차자들을 배제하는 것이 너무 비싸거나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민간인들 중 그 누구도 뱀을 없애려 들지 않을 수 있다. 만약 뱀이 디즈니 월드에 나타났을 때는 디즈니 월드 소유자들이 어떠한 동기를 가지게 될지는 예측하기 쉽다. 결국 그 소유자들은 고객들이 디즈니 월드를 이용하고 싶은 수요가 놀이공원에서 뱀을 보게 될 경우 급격하게 떨어질 것을 (아마 0으로) 알게 될 것이다.

어떠한 재화를 공공재라고 성급히 판단하지 말자. 일부 재화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는 이유는 정부가 그 재화가 공급되는 부동산을 소유하기 때문이다.

본 내용은 <https://fee.org/articles/is-pest-control-a-public-good/> 를 번역한 내용입니다.

번역 : 김주현

이 글은 FEN 경제지식 네트워크 해외 정보 번역 코너 <http://fen.or.kr/?p=1795>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